

익산보석박물관 새단장

각종 시설개선... 보석 관련 실감콘텐츠도 선보여

익산 대표 관광지인 보석박물관이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박물관은 올해 3월부터 진행된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따른 전시관 보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공사는 관람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석박물관 이용을 위해 진행됐다. 총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해 옥상 방수공사, 외부 창호 단열필름 시공, 화장실 리모델링, 승강기 교체,

수변전설비 교체, 방난방기 교체 등 개관 후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들을 정비했다.

또한 2층 상설전시관 입구에 스피드 게이트를 도입해 전시관 입장 시 티켓에 있는 바코드를 관람객이 직접 태그

하면 게이트가 열리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검표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초 1층 기획전시실 일부에 구축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사정으로 운영하지 못했던 보석 관련 상호작용형 실감콘텐츠도 재개관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곽경원 보석박물관장은 "노후화된 시설을 재단장에 보다 나은 관람 여건을 제공하여 이용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보석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석박물관은 익산의 상징인 보석을 테마로 한 국내 유일의 박물관으로 2002년 5월에 개관한 이래 11만 9천여 점의 진귀한 보석과 원석 전시로 사랑받고 있으며 연간 2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익산시 대표적인 문화시설로서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익산=이재춘 기자

청년창업농 조기영농정착 '경영 컨설팅' 실시

익산시, 청년농업인 9명 대상, 11월까지 3회 지원

익산시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는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영농현황을 분석하고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선발된 춘포, 웅포, 용동면 등에 기반을 마련한 청년창업농 9명(식량 2명, 원예 6명, 축산분야 1명)을 대상으로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 소득과 분석, 사업확장 등 개별농가의 요구에 맞

춰 진행된다.

5월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한 달 간격으로 진행되는 컨설팅은 전문 경영컨설턴트가 농장에 직접 방문하고 경영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해 농장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표 산출 및 경영개선 처방전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차 컨설팅부터는 농가별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처방전에 따른 실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한다.

또한, 11월 중에는 사이버 비즈니스

스를 주제로 집합교육을 실시해 청년농업인들의 온라인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최종 컨설팅이 완료되면 내년 농장 운영계획과 향후 발전과제가 수립되며, 11월 결과평가회를 개최해 농가별 추진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해 청년창업농이 농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성공적 운영전략을 세우길 바란다"며 "청년창업농의 조기 영농정착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옥산면, 청암산 등산로 · 수변로 개선 활동 추진

군산시 옥산면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옥산면 주민자치회 옥산농협과 함께 청암산 일대를 돌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청암산 등산로 · 수변로 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번 청암산 개선 활동은 청암산 안내지도의 수변로(파랑), 등산로(빨강) 색상과 동일한 안내대를 곳곳에 부착하고 안내판 5개소 설치해 청암산을 처음 방문하는 등산객들의 조난사고

를 예방하고 등산객들의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조난사고 예방 3개 지점의 표지판을 개선해 시인성과 안내성을 높

였으며, 국가지점번호 표지판 개선과 관련, 중앙규제개혁심의회에 심사를 신청했다.

윤명규 옥산면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청암산 개선 활동을 통해 애항심과 주민의식이 고취됐으며, 청암산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청암산을 즐길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화천 옥산면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암산 안내시설을 보완·정비하여 청암산을 방문하는 모든 등산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등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4-H연합회(회장 김홍순)가 신규 청년농업인과 함께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미래 농업 주역 될 청년농업인

군산시4-H연합회, '청년창업농 공유농장 조성' 봉사활동 실시

군산시4-H연합회(회장 김홍순)가 신규 청년농업인과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4-H연합회는 지난 27일 영농기반이 열악한 이들의 조기영농 정착을 돕고자 삼산면 여밭리 일대 시에서 조성중인 청년창업농 공유농장 부지에서 영농기반조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시는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청년창업농 및 귀농예정자들의 영농체험과 현장교육 실습장으로 활용할 임시영농기반인 공유농장 4면4.136㎡를 조성 중에 있다.

40세 미만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으로 조직된 군산시 4-H 연합회 회원 30여명은 이날 영농일정이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소유한 농기계와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장비를 활용해 돌고르기, 정지작업, 제초작업 등 영농에 적합한 땅고르기 작업을 실시했다.

김홍순 군산시4-H연합회장(32)은 "바쁜 영농철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후배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정착을 돕고자 솔선수범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4-H인으로서 4-H이념인 농업농촌과 인간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하고 선한 영향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미래 농업에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 영입과 영농정착을 도와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청년농업인들이 4-H 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농업발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청 육상부, 전국육상경기대회서 메달 획득

익산시청 육상부가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메달 5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25일에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제22회 한국J20(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시 소속 육상 선수들이 금메달 3개를 포함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먼저 여자 일반부 800m에 출전한 신소망 선수가 2분07초2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해 국내 최고 선수의 자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원반던지기에서는 신유진 선수가 54m76, 세단뛰기에서는 유규민 선수가 16m55를 기록하며 각 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한규20에 출전한 오혜원 선수는 800m 2분15초31, 1500m 4분48초45로 금메달을 차지해 2관왕에 등극했다. 이주형 육상감독은 "열심히 훈련에 임한 선수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다음 달 열리는 2022 고령동원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고충 · 생활 민원 처리 유공 공무원 '표창'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유공 표창을 수여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고충 · 생활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직원 11명을 선정해 표창하고 지역화폐(익산다이어로움) 2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올 상반기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5명과 고충 · 생활 민원 처리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6명을 선정해 수여됐다. 유공 공무원은 모현동 박경열, 동산동 김미숙, 모현시도서관 최정남, 국민생활관 서중섭, 주택과 김미영, 주무관이며, 고충 · 생활민원 처리 유공 공무원은 민원처리 노력도, 만족도가 높은 공무원으로 도로과 강병근, 교통행정과 김경태, 이영민, 하수도와 김병현, 환경정책과 최기현, 늘푸른공원과 최형석 주무관이 선정됐다.

정현을 시장은 "힘든 상황에서도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농협은행 군산시지부 사랑의 장학금 전달

군산시는 NH농협은행 군산시지부(지부장 김대호)가 28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 29명에게 장학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NH농협 군산시지부는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16명, 중학생 9명에게 1인당 20만원, 고등학생 4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전달식에는 김대호 지부장을 포함해 초 · 중 · 고 학생 대표 각 1인이 참석했다. 김대호 지부장은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나가며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NH농협은행 군산시지부는 매년 군산시에 성금(품)을 기탁해왔으며, 코로나19 시기에 누적 6천만원 상당의 성금(품)을 기탁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